시 론

머지않아 그 꽃잎들이

박 노 식
시인·시앤영 원장

산중의 봄꽃들은 도시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온다. 한낮에는 언 땅이 녹으며 질컥거리는 면이 있지만, 땅속은 아직도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서 깊은 뿌리를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봄물을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산중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나무마다 몸살을 앓다가 어느 순간 깨알만 한 꽃망울을 보여주면서 차차 콩알만 해지다가 마침내 견딜 수 없다는 듯 터진다.

속앓이가 심해서 그런지 산중의 꽃들은 유난히 선명하고 고운 빛깔을 띤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꽃잎마다 "날 쉽게 잊지 말아요." 귓속말로 속삭이듯 수줍게 피어있곤 한다.

며칠 전에 도시의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필자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맞은편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걷다 서기를 반복하던 한 노인께서 무작정 필자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인데, 잠깐이었다.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의 큰 건물 앞마당을 운동 삼아 걷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보니까 한 나무에 티눈만 한 꽃망울이 맺혔더란다. 그런가 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다시 그 앞마당을 지팡이에 의지해가면서 섰다 걷기를 반복하다가 다시 그 벤치로 돌아와 앉았는데, 세상에 그사이에 그 꽃망울이 잠시를 못 참고 터져버렸다고 한다.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숨만 토하는 자신이 남사스러워서 그만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그 꽃망울처럼 한순간이어서 너무 허망하고 서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더라."는 것이다. 잠깐이지만 누가 과연 이 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분을 위해 한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건넬 수 있을까.

필자는 그 노인의 생각을 읽고 복잡한 감정이 흘러갔는데 아찔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는 꽃을 인생에 비유하곤 하지만 그분은 정반대로 피는 꽃을 통해서 인생의 찰나를 터득해 버렸으니 필자로 하여금 역발상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뒤를 돌아보는 일을 이야기할 만큼 생이 공허했으리란 것도 필자는 안다.

인간은 꽃을 통해 자신의 희로애락을 발견하고 자신의 감정을 꽃으로 대신 표현한다. 축하는 물론이고 기념식이나 애도의 자리에도 꽃과 함께한다. 병상에 누운 지인에게도 꽃을 들고 찾아가 쾌유를 빈다. 심지어 꽃을 꺾거나 돈을 들여 산 꽃을 화병에 꽂아 식탁이나 사무실에 두고 감상하는 걸 보면 꽃은 만인의 뮤즈이고 주술 같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고흐는 조카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두보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꽃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한을 토해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 꽃이 주는 영감은 각별하다. 예민한 감성과 예민한 관찰력으로 표현의 정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수영 시인(1921-1968)의 시 「꽃잎1」(1967)은 시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기 1년 전에 쓴 작품으로 그 연약한 꽃잎이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만큼 숭고한 것임을 보여준다.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벼를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 잎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꽃잎은 조금 꺼진 듯 어두워도 곧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바윗덩어리 같은 큰 힘으로 떨어져 내릴 것이므로 결국 혁명 같은 것이 또한 꽃잎이다.

힘없고 죄 없는 꽃잎들을 무참히 짓밟은 군홧발과 아름다운 꽃가지를 마구 휘둘러 쳐내는 망나니의 칼끝은 다를 게 없다. 머지않아 그 꽃잎들이 다시 들고 일어설 것이다.

기 고

사회보장제도, 지역주민의 공감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 호 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얘기 들었는가! △△군은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는데. 글고 ○○시는 학생들 오게 할라고 장학금도 주고. 노인들한테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런가 봐. 거기는 살기 좋것어"

동네 주민들이 모일 때 흔하게 하는 대화의 주제다. 대화의 내용을 행정 측면에서 바라보면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일컫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인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시행하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지역복지체계 구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고 변경하려면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통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꼭 중앙의 협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중앙에서는 '사업 목적, 성과 지표, 지원 대상, 대상 규모, 지원 내용, 전달 체계, 소요 재원'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반드시 중앙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변경은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고 변경함에 앞서 점검해야 할 여러 가지 중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원칙과 방향은 첫째,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조사, 분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민간 참여의 분야를 보다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도 지자체는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업, 그 밖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이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 분야의 역할 수행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정책 성패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공개와 홍보다. 즉,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책을 판단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 사회, 디지털 혁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전남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22일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롭게 신설할 사업과 폐지 및 제외해야 할 사업 등을 중앙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을 마무리했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20일 이상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보장제도는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도와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성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 또한 매년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과 사회보장제도 정책이 올바른 정책으로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독자투고

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소집 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한다.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를 위해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한 자세로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을 돕고, 안전문화 정착 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3월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1958년 3월 소방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올해 3회째다.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화재예방 등 곳곳에서 활동 중인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유묵·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에 환자 불안감은 더 커진다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선회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학교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를 내고 있다. 예정대로 무더기 사직이 가시화됐다.

교수들은 부끄러운 스승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 텅 빈 강의실과 불 꺼진 병원을 바라보며 심한 자괴감도 호소한다. 일단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외래·수술 등 진료를 주 52시간으로 단축,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다음달부터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 건수가 30-50% 줄어든 가운데 외래 역시 3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샅바싸움이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나, 전남대·조선대병원의 경우도 최악의 의료 마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의 전제로 삼고 있다. 터무니없다며 의대 증원 2천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는 불가하다며 맞서 있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00명을 추가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등 비상진료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 지시에도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부 결속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질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증원 규모 2천명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융통성을 갖고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 언제든 누구와도 만나야 한다. 의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양측이 적극 소통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의료 대란 장기화는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해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특히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들은 날로 치솟는 분양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며 현혹시킨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능적 사기다. 설마 설마 하면서도, 또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집 장만의 부푼 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바뀐다. 순식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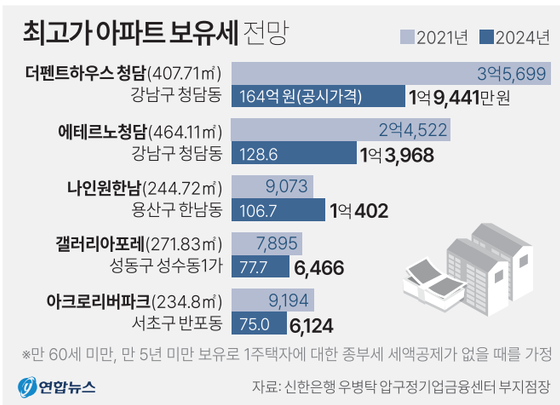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겠다. 광주시 서구가 집중점검을 벌여 지역주택조합의 불법을 근절하기로 해 주목된다. 매월 1회 이상 수집한 광고물 자료와 조합원 모집 광고와 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관내 14개소에 대해 시공사 분양 관련 플래카드, 홍보물 등 광고물 점검, 가입·탈퇴 문의 등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엄중 단속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민생 범죄다. 지역주택조합의 공급도, 수요도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 역시 그 정도를 넘어섰다.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가 아닌데도, 지나친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예삿일이다. 사업이 차일피일 장기화돼 더러 무산되기도 한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발을 빼기가 어려운 구조다. 궁극에 돈도 집도 모두 날린다. 더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 당국은 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유명 시공사만 믿고 묻지마 식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픽 뉴스

공시가 가장 비싼 아파트 올해 부동산 보유세 2억원 육박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소유주는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천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천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천941만원이다.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천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보유세가 1천81만원(6.2%) 오르지만, 3억5천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씨 부부와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28억6천만원으로 전국 2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천968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 씨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